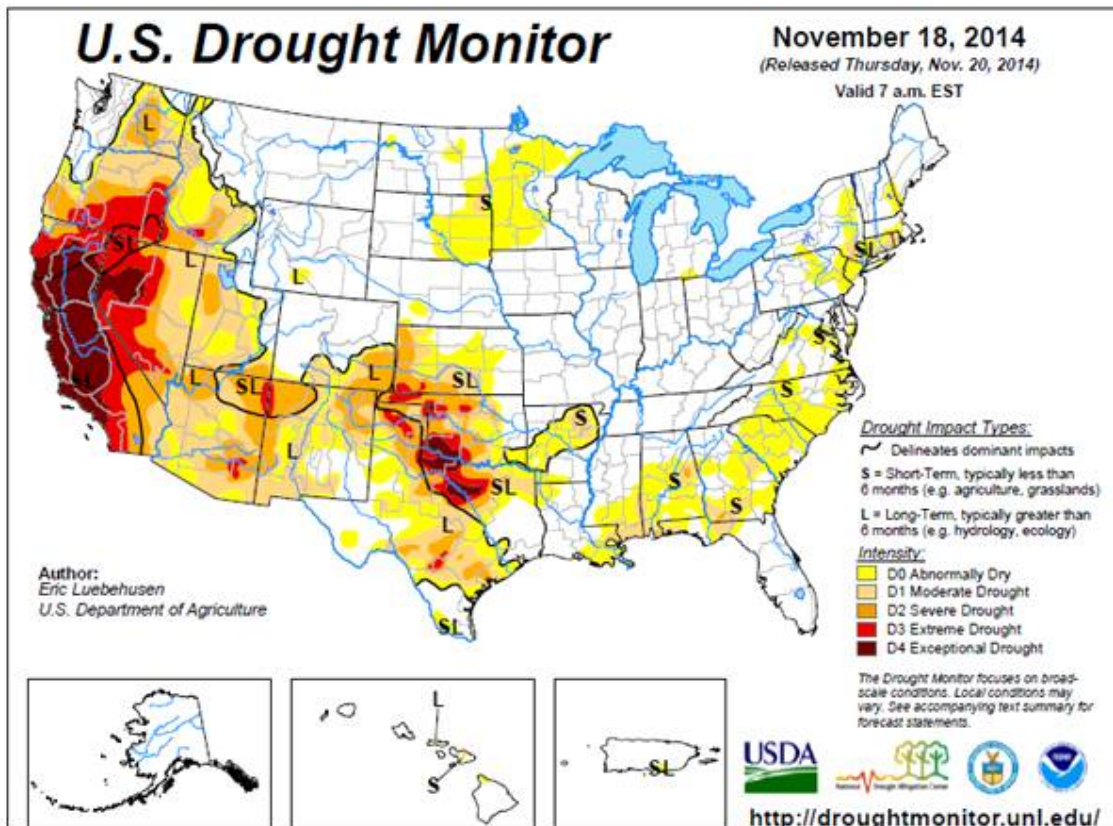


11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47)

□ 미국 기후 현황(11/16~11/22)



태평양 연안을 제외하고 이례적인 한파가 전국을 지배하였다. 평년에 비해 가장 추운 날씨가 중서부 지역을 뒤덮었으며, 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10- 20°F 가량 낮았다. 영하의 기온이 록키산맥, 북서부 내륙지역, 대평원과 중서부 동부 콜로라도에서 위스콘신에 이르기까지 중서부 상단지역에 기록되었다. 2주간 연속된 한파는 남부 생산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가을밀을 휴면 상태로 만들었지만 중서부 지역의 경우 늦게 파종된 밀의 출수가 가능해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 초반에 많은 지역에 강수량이 발생하였으며, 주말로 갈수록 남부, 동부, 중서부 하단 지역에 다시 강수량이 집계되었다. 주 초반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 11월 17-18일 경에 다시 많은 눈이 내렸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로 인해 후기 시즌 성장중인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이 지연되었다. 대호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여행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비가 내리고 습한 날씨로 인해 남부지역에서는 가을 밀 파종과 면화, 대두의 수확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주간 총 강수량은 동부 텍사스에서 남부 애팔래치안 산맥에

이르기까지 총 2인치 가량 기록되었다.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으며, 많은 양의 비(국지적으로 2인치 이상)가 내리기도 하였다. 비는 방목장, 목초지, 겨울 밀이 자라는 지역에 효과적인 수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및 북서부 지역에서는 주 중반에 비와 눈이 발생하였다. 북서부 캘리포니아 및 북서부 내륙지역에서는 장기간 이어졌던 가뭄을 해결할 강우량이 기록되었지만,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남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농업 현황 요약(11/17~11/23)

콘벨트 지역과 북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 건조한 날씨를 경험하였으며 가을철 농작업을 완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남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많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총 강수량은 5인치 정도였다. 최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강수로 인한 사탕수수 수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역에서 평년대비 기온이 낮았으며, 중서부 상단에서 중부 대서양 연안지역에 이르기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10°F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호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기온이 15°F 이상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 옥수수

주말 기준, 전국 옥수수 수확량은 94%p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5년 평균대비 2%p 앞선 수준이다. 옥수수 수확은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제외한 모든 관측중인 주(州)에서 90% 정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두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두의 수확은 97%p가 진행되었으며, 전년대비 2%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州)에서 대두 수확량이 95% 이상인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켄터키, 북부 캐롤라이나, 테네시주는 예외적이었다.

■ 면화

11월 23일 기준, 면화의 수확은 77%p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5년 평균대비 6%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면화의 수확은 텍사스 평야지대에서 지속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내린 탓에 수확이 지연되었다.

■ 가을밀

11월 23일 기준, 전국적으로 가을 밀 출수율은 92%p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5년 평균대비 3%p 앞선 상황이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58%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4%p 낮은 수치이다.

□ 세계 기후 현황(11/16~11/22)

■ 유럽: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비가 지속해서 내렸으며, 평년대비 높은 기온은 후기 시즌 생육중인 겨울 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스칸디나비아 남동부 지역에서 서부 러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대서양 연안에서 발생한 폭풍이 유럽에 머물러 많은 지역에 비(5-50mm)를 내리게 하였다. 남부 유럽에서는 50-11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이탈리아 일부 지역 및 서부 발칸반도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고원지대와 발칸반도에서는 눈이 내렸고, 산악지역에 스노우팩이 형성되게 하였으며, 관개 보유량과 봄철 수량 전망을 향상시켰다. 스페인 중부와 북부지역에서는 겨울 곡물의 성장에 효과적인 소량의 비(2-25mm)가 내렸고, 이는 2014-2015년의 겨울 우기를 시작하는 좋은 징조가 되었다. 유럽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5°C 정도 높았고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 구소련(서부):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겨울 작물의 휴면이 용이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이 평균 1-2°C 낮았고, 러시아 지역에서는 5°C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밀 벨트 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은 5°C정도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남부 대부분의 밀 재배 지역에서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 밤 최저 기온이 영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겨울 작물이 휴면 단계에 근접하였거나, 용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 서늘한 날씨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눈 덮이는 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가을밀과 보리는 혹독한 추위의 잠재적인 침입에 노출되지 않았다.

■ 동아시아: 중국에서는 소량의 비가 내려 생육상태에 있는 겨울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충족시켜 주었다. 북부 중국 평원지역에서는 1-1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가을밀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해난 및 산둥지역에서는 10-25mm의 강수량이 집계되었다. 서부 양쯔 계곡 인근에서는 10-20mm의 비가 내려 겨울 유채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양쯔 계곡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발생하여 작물 생육에 좋은 조건은 유지하였으나 충분한 관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겨울 작물 재배지역의 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5°C 높았다.

■ 호주: 서부와 남동부 호주에서는 산발적인 비(5-20mm)가 내렸지만, 전주 대비 더욱 넓은 지역에 산발적이고 소량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남부의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겨울 작물의 수확이 지연되었다. 남부와 서부 호주의 경우 국지적으로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2주 연속, 덥고 건조한 날씨가 뉴사우스웨일스와 남부 퀸즐랜드 지역에 형성되었으며, 밀, 보리, 카놀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하였다. 평년대비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는 수분증발량을 높였고, 최근 파종된 여름작물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추가적인 파종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호주 동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 5°C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C 중반에서 40°C 초반을 기록하였다. 한편, 밀 벨트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다소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으며, 최고 기온은 30°C 중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의 여름작물 재배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새로이 시작된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곳은 남부 Cordoba이며, 마찬가지로 북중부 Argentina인 Santiago del Estero에서는 200 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남부와 동부 아르헨티나의 총 강수량은 대체로 소량이었으며, 일반적으로 10-50mm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3°C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중부와 동부 Buenos Aires의 경우 30°C 초반에서 후반을 기록하였다. 11월 20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해바라기 파종은 83%p가 진행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92%p였던 것과 비교가 된다. 옥수수 파종은 올해 42%p, 대두의 파종은 36%p가 진행되었다.

■ 브라질: 대두의 주요 생산지역인에서는 비가 내려 작물 생육상황에 도움이 되었다. 총 강수량은 Mato Grosso에서 Parana 지역의 경우 25-65mm를 기록하였으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 3°C정도 높았다. 낮 최고 기온은 30°C에 달하였다. Tocantins, Bahia와 같은 북동부 내륙지역에서 강수량은 100mm를 초과하였다. 동부에서 북동부 연안으로 비는 확장되었지만, 소량의 비(25mm 미만)이 기록되어 사탕수수의 수확에 작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남동부 커피 벨트지역(Minas Gerais와 Sao Paulo 인근지역 및 Espirito Santo)은 건조하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 후기 개화기에 진입한 작물의 수분이 감소되었다. 계절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량의 비(5-25 mm)가 2주 연속으로 내린 Rio Grande do Sul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탓에 이전에 비해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11월 20일 기준, 브라질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Rio Grande do Sul 지역의 밀 수확은 79%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두의 경우 45%가 파종(전년동기 48%p)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